



해양수산부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2. 12. 13.(화) 조간 2022. 12. 12.(월) 11:00	배포 일시	2022. 12. 12.(월) 06:00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연안해운과	책임자	과 장 변혜중 (044-200-5730)
		담당자	사무관 황신혜 (044-200-5733)

2022년 「섬 여행 후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

- ‘그곳, 호도에서 우리는 모두 행복했다’ 대상 수상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2년 섬 여행 후기 공모전’ 대상으로 윤봉열씨의 ‘그곳, 호도에서 우리는 모두 행복했다’를 선정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함께 상금 300만원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대상으로는 윤봉열씨의 ‘그곳, 호도에서 우리는 모두 행복했다’가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다니는 일곱 가족 스물여덟 명이 충남 보령의 ‘호도’라는 작은 섬을 여행한 후기가 생동감 있고 다채롭게 구성되었으며, 독자에게 섬 여행 동기를 자연스럽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우수상은 최재선씨의 ‘그 섬, 금오도’가 선정되었다. 명성황후가 사랑한 섬으로 알려진 전남 여수의 ‘금오도’에서 중증 복합장애를 앓는 아들과 27년간 아들을 돌본 아내와 함께 사흘을 머물며 섬의 벼랑길, 전망대, 몽돌 해변 등을 그림처럼 표현하고 파도 소리, 저녁 노을을 보며 삶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잊었던 시간을 감동적으로 잘 표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외에도 부모님 환갑 기념 가족 여행기인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곳, 덕적도’, 불음도를 다녀온 ‘저어새를 찾아 떠난 여행’ 등 다양한 섬 여행 후기가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을 타고 섬으로 떠나는 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섬 여행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섬 여행 후기 공모전’을 개최해오고 있다. 첫째 123건 참여 시작으로 올해는 총 131건이 접수되어 해마다 섬

여행 후기 공모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 여객선을 이용한 섬 여행 중 있었던 일화나 섬 관광명소·맛집 등을 소개하는 후기를 A4용지 4장 내외로 작성하여 제출

올해 공모전은 지난 6월 21일(화)부터 10월 14일(금) 까지 약 4개월간 개최되었으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주제 적합성, 내용 독창성, 작품 완성도 등 항목에 대해 3단계의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 1편,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특별상 1편, 장려상 5편 등 10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10명의 수상자에게는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등 총 850만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수상작들은 여객선 예매누리집(island.haewoon.co.kr)과 '해운스케치' 등의 간행물에 게재되고 앞으로 '섬 여행 후기 공모전 입상작 모음집'에도 등재되어 섬여행 홍보에 활용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안여객선을 이용해 가족, 친구, 친지들과 함께 다채롭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섬을 여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수상작 목록 및 대상 수상작 섬 여행 기념 사진

포상훈격	작품명/수상자	포상훈격	작품명/수상자
대상	그곳, 호도에서 우리는 모두 행복했다 / 윤봉열	장려상	3대가 함께한 섬마을 여행 / 백인수
최우수상	그 섬, 금오도 / 최재선	장려상	느리다고 늦는 것은 아닌 것을(청산도를 다녀와서) / 윤재광
우수상	우리가 더 가까워지는 곳, 덕적도 / 김혜진	장려상	슬픈 호연의 섬 / 오유민
우수상	저어새를 찾아 떠난 여행 / 신현주	장려상	나의 버킷리스트 58번 : 울릉도 여행 / 김가현
특별상	섬에서 아름다운 자연을, 사람을, 그리고 내 나라를 만나다 / 변국석	장려상	순례자의 섬, 기점소악도 / 정희숙

대상 수상작(섬 여행 기념 사진)

